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4)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성령님을 좇아 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하였는데 “영의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앞에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을 때 육신의 일은 “육체의 일(the deeds of the flesh),” 곧 육체의 행동들, 죄성에서 비롯된 죄의 열매들을 가리킨 것이었다. 따라서 영의 일이란 다른 아닌 성령님의 일, 행동,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산출되는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육체의 일(행동, 열매)과 대조적인 의미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슬픔과 우울증과 염려와 걱정에 눌린 사람이 심령의 기쁨으로 희락이 넘치고, 원수 맺고 당짓는 사람이 화목케 하는 삶을 살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나밖에 모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죄와 악을 도모하던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신뢰감을 주지 못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고, 사납고 차가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자신을 잘 통제하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가 새로운 나의 영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마음과 태도와 삶이 바뀌며,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좇는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영의 일이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먼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2:11-12)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진짜 모습, 필요, 사정을 누가 잘 알 수 있는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아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영을 따라 움직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영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새 영은 아직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성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